

# 6년 임기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좋은 재판, 국민 체감·인정 시 완성”

퇴임식서 “재판 지연  
문제도 사법부 전력  
발휘할 수 있어야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받아들일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재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전력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온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 그는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2일 현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뉴시스

##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내 내홍 심화에 “지혜 발휘해 최적의 결론 내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내홍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지혜를 발휘해서 최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 ‘청년과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많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총리는 단식 11일 차에 이른 이 대표를 찾아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아주 착잡하게 보고 있다”면서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단식을 만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관련된 나머지 피의자들의 모두 구속했다”며 “이 의원이 범죄 행위들이 반복된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 ‘청년과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조경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추석 일정 등 상황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 ‘1회용품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도의회 환복위·전북광역자활 등 공동  
탄소중립 실천 위한 자원순환포럼 개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영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유혜숙)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온 전북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유리병 재사용 사업, 브라질 등 남미 등의 코카콜라 페트병 재사용,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보증금을 활용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 모델 등 국외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사례 중심의 지정토론에서는 간담북 정은실 대표로부터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잔터 ‘불모지장’의 운영 사례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에서 도내 축제의료기 모타링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포럼을 개최했다.

참여하는 주체인 지자체, 기획자 및 운영자, 시민들의 쓰레기 생산에 대한 책임과 감축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례 발표 이후 정책제언에 나선 전북도의회 황영석(김제2) 의원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던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과 민간 부문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원사업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 노력을 표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에 나선 전라

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전경식 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방향과 전북도가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한 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장례식장 대화용기 시범사업 등에 대한 확대 방안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북도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은 강동화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진행된 포

럼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늘 지적된 현상의 문제들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세미나를 개최한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과 박용근 의원이 지난 23일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희생의 땅 새만금,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강동화·박용근 도의원, ‘새만금예산 살리기’ 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과 박용근 의원(정수)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두 의원은 “새만금은 34년간 정치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만큼은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새만금SOC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이 희생이 아닌 희망으로 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짊

버리 과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와 맥을 같이한다”며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짊버리 과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새만금SOC 예산도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부족요구액 대비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훈기자

## 디지털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한병도·김수홍·소병훈 의원 공동 주관 세미나  
메타버스·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등 토론

지난 22일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ICT의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관련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과 김수홍(익산갑) 의원, 소병훈(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조강연은 △김대영 KAIST 교수가 ‘글로벌 농축수산물 수출을 위한 미국 FDA 및 유통사 소비자를 겨냥한 차세대 국제표준 활용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어 주제발표로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이 “글로벌 시대에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을, △강지훈 에릭슨-IG 팀장은 “디지털 트랜스인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옴니채널 소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푸드팩토리 시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제언을 위해 메타버스, 모발피티, 디지털헬스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지역 전략산업 소프트웨어 융합관망 등을 주제로 농진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네이버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 22일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김수홍·소병훈 의원과 정현을 익산시청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식품산업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 식품산업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수출 중심의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ICT 기술의 접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익산=이재훈기자

##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에 조례 제정 등 제시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10)는 오는 29일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앞두고, 지난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30일에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구성됐으며,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내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협정활동,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구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북 맞춤형 전략 수립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형 특구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고, 3회에 걸친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전북도와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신속·공동 대응하고, 방안 제시 등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함께 전북균형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전북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도 도의회와 전북도, 관련기관, 시군 및 시군의회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